

지역 소식 통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실무회의 개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 군수 부회장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박천동 울산 북구청장은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 마린아는 호텔에서 2025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협의회 소속 18개 지자체 부시장 팀장을 비롯한 실무진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전인근지역 지원을 위한 세원 발굴 연구용역, 원전안전지역 방산방재 역량 강화 방안 등 2025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행정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회원도시들이 개진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세원 발굴에 박자를 가해 원전인근지역 지자체 주민 보호 및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은 2019년 원전 안전 등을 위해 결성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올해 339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정읍시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339가구에 총 3억 5000만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는 △그린리모델링(24가구, 1억 2000만원)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보수(300가구, 1억 2000만원) △장애인 주택 개조(12가구, 4500만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37가구, 2000만원)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보수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부엌 개량 창틀 교체, 보일러 교체, 화장실 보수, 전기시설 점검·보수를 비롯해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 설치까지 지원해 생활 편의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해상 어선 화재 사고 수습 총력 지원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가동... 24시간 비상근무 실시

부안군이 지난 13일 부안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와 관련해 재난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사고 수습에 총력 대처하고 있다.

군은 사고 발생을 접수하고 행정선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으며 정화영 부군수 주재로 긴급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가동을 결정했다.

이후 사고 당일 오전 10시 30분 권익현 부안군수를 본부장으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이어 오전 11시 30분 부안군 변산면 격포 꽃내음센터 1층에 정화영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재난상황관리반 사고수습반 실종 선원 가족지원반, 의료지원반 취재지원반 등 실무 5개반으로 구성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또 사고 당일 오후 1시 30분 격포 꽃내음센터 2층에 실종 선원 가족 지원장을 설치하고 물과 식량 담요 텐트 등 적십자사 구호물품을 지원했으며

부안해양경찰서 상황실 및 부안경찰서, 생존 선원들이 후송된 병원 4개소에 연락관을 파견했다.

군은 사고 어선의 실종 선원에 대한 수색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비상근무를 유지할 계획이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 해상에서 대형 어선 화재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실종 선원 수색 작업과 가족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작... 심덕섭 군수 1호 발급

고창군, '삶이 편해지는 첨단기술, 많은 군민 혜택 누리길'

고창군이 지난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업무를 시작했다. 17세 이상 군민은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단계적 확대 기간을 거쳐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청 시 QR 코드 또는 IC주민등록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QR코드 발급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일회용 QR코드를 활용하는 방식이며, 신청 즉시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고창군이 지난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업무를 시작했다. 17세 이상 군민은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IC주민등록증 발급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는 방법이다. IC칩(5000원), 실물 주

민등록증 재발급(5000원) 등 총 1만원의 발급 비용이 든다. 군은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해 IC칩 발급 비용 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아침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읍 주민행복센터에 방문해 '고창군 제1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또한 민원응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다양한 민원과 많은 업무량으로 애쓰는 민원팀의 노고를 알고 있다"며 "민원종합평가 우수 등급 달성 등 군민행복 실현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군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신분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희망2025' 캠페인 목표 초과 달성

정읍시민들이 따뜻한 기부로 희망을 밝혔다. '희망2025 행복나눔캠페인'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며 나눔 문화 확산의 모범을 보였다.

정읍시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희망2025 행복나눔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기부문화 확산을 목표로 추진된 이번 캠페인은 시민과 기업 단체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희망2024 행복나눔캠페인'에서는 목표액 3억 5600만 원을 초과해 총 7억원을 모금, 달성률 202%를 기록하며 기부문화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힘입어 올해는 목표액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8억 700여만원이 모이며 134%의 초과 달성률을 기록했다.

이번 캠페인의 성공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 덕분이었다. 특히

기업과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기부자들의 지속적인 후원이 이어지며 정읍의 나눔 문화가 더욱 뿌리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캠페인 종료 이후에도 기탁식이 계속 열리며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화수 시장은 "시민, 기업, 단체가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추운 겨울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줬다"며 "나눔을 실천해 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기부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지역 사회의 화합과 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시민들 요구사항 반영 의견 제시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는 12일부터 2025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다양한 질의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오명제 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시기적절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자금 확대 방안 강구를 당부했다.

송기순 부위원장은 게스트하우스 사업에 대하여 만족도조사 등의 사후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빈집을 이용한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고경윤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아외운동기구 등 체육시설을 사전에 점검할 것과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교실의 프로그램 다양화를 강조했다.

이도형 의원은 단풍나무 등의 도로변 가로수가 곳곳에 고사된 것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함을 강조, 보호수와 어울리는 숲 조성을 제안했다.

이상길 의원은 이양산 목조 전망대, 치유의 숲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사업의 적극적 홍보를 당부



했다. 정상철 의원은 한국가요촌 달하에 고택 이전 조성 등의 색다른 콘텐츠 사업이 필요하며, 무성사원·동화 등의 관광지 연계 스텝프투어 사업도 강조했다.

최재기 의원은 구절초축제 방문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수종 개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계절 관광지회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서항경 의원은 화장실은 그 지역의 얼굴이라며 전통시장 상권의 화장실을 정비하고, 공원화장실의 배설(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위원회별로 18일까지 2025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을 심사하고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 총력

정읍시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며 촘촘한 지역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시 희망복지지원단은 사회적 고립가구를 돕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확대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시는 가족 구조 변화와 개인주의 확산으로 사회적 고립 문제가 커지면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

해 생활임종 종사자 1419명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지역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 또한 위기가구 제보 채널인 '정읍이웃 복지동행' 시스템을 도입해 위기가구를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정·단수·보령료 제남 등 47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3191世대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공공·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지리적표시 명품 고창수박' 첫 정식 시작

고창군이 지난 14일 오후 아산면 남산마을의 이만수 농가 포장에 올해 첫 모종 정식(定植)을 진행해 2025년 지리적표시 명품 고창수박 재배 시작을 알렸다.

고창수박은 2~3월까지 1기작 수박 모종 정식이 진행되고, 14일 정식된 수박은 5월 하순쯤 수확되어 첫 번째로 지리적표시 마크를 단 명품수박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앞서 고창수박은 지난해 9월20일 지리적표시제 118호로 등록됐다. 고창수



박 지리적표시 등록은 고창수박의 명성을 확고히 하고, 농산물의 지적재산권 확보 위해 2020년부터 수박재배농가와 고창군이 진행해 오던 오랜 숙원사업의 결과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